

희생

Opfer

1. 어원 및 개념 정의

희생 Opfer은 희생하다 opfern의 명사로 “opfern”은 무엇인가를 신에게 바치다, 종교적 제물을 바치다, 어떤 일을 수행하다란 의미의 8세기 고고지 독어 opfarōn에서 발달했다. 중고지독어에서 opfern으로 바뀌었으며 의미도 (종교적) 제물을 바치다로 좁혀졌다.

희생은 원래 신에게 바치는 산 제물을 뜻한다. 이 같은 의미는 남이나 어떤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이나 귀중한 것을 바침, 재난 등으로 헛되이 목숨을 잃음으로 확장되었다.

2. 희생 모티프의 원형

(1) 아브라함 Abraham

아브라함은 사촌 누이 사라와 결혼하여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하여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이를 따랐다. 이 같은 신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복종은 여러 가지로 확장된 문학적 모티프로 작용한다. 이 모티프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묘사하는데 작용한다.

1) 신의 섭리에 대한 완전한 믿음

신 앞에 서 있는 인간은 의혹에서 기쁨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초자연적인 힘에 대한 완전한 믿음 속에서 인간의 존재가 모순에 차 있고 지극히 연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2) 희생과 몰락에 대한 성찰

3) 기독교적 순종에 대한 거부

4) 희생을 중심으로 한 갈등 상황 발생

5) 죽음에 직면한 아들과 아버지의 고통

6) 강요된 부모와의 결별

7) 야만적 권력자의 억압

8) 부당하고 냉혹한 신을 거부함으로써 자유로운 자기 결정권이 있음을 주장.

9) 낡은 질서와 권위를 제거하기 위한 시도



〈이피게니에의 희생〉, 지오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 18세기 중반>

(2) 이피게니에 Iphigenie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피게니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제물로 바쳐진 인물로 희생의 전형적 본보기이다. 이 피게니에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클리템네스트라의 딸이다. 아가멤논은 그리스연합군의 사령관으로 트로이 정복을 위해 모든 군함을 아우리스 항에 집결시켰지만 바람이 불지 않아 출항하지 못한다. 아가멤논은 예언자 칼카스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딸 이피게니에를 아르테미스 여신에게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 아가멤논은 이피게니에를 영웅 아킬레우스와 결혼시킨다는 구실로 아우리스로 부른다. 이후 이 피게니에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나 에우리피데스는 『아우리스의 이피게니에』

에서 마지막 순간에 이르테미스 여신이 이피게니에를 타우리스 섬으로 보내 신관으로 삼고 그 대신 사슴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그리고 있다. 이 같은 이피게니에의 희생을 기본 모티프로 하여 만들어진 대표적 인물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 1) 희생되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처음엔 거부하지만 대의를 위해 죽음을 자청하는 영웅적 인물.
- 2) 희생이라는 비참한 운명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인물. 이러한 인물은 대개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극복하지 못하고 신의 도움을 통해 구원받는 인간의 한계를 보여준다.
- 3) 성숙한 인간으로서 인간애를 실현시킴으로써 희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성숙한 여인상.
- 4) 희생을 요구하는 권력 앞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3. 모티프 유형

- 1) 신에게 바쳐지는 종교적 제물.
- 2) 사회관습에 의해, 또는 윤리적으로 부당함을 받는 인물.
- 3) 정치적 대의를 위해 제거 당하는 인물.

브레히트의 학습극 『조처』에 등장하는 젊은 동지는 혁명수행이라는 정치적 대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것에 동의한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혁명이 계속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범죄에 의해 해를 당하는 인물.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매스컴의 희생자를 다룬 소설이다. 신문이 저널리즘의 속물근성으로 편파적이고 선동적인 여론을 야기하는 무책임한 범죄를 저지를 때 이와 관련된 자는 사회적으로 몰락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카타리나와 그 주변 인물들은 이 같은 매스컴의 범죄행위로 인해 사회적으로 매장 당한다.

5) 자연 재앙에 의해 해를 당하는 인물.

6) 전쟁을 통해 희생당하는 인물.

7) 사회적 문제에 의한 희생자 (예를 들면 마약의 희생자)

우르스 비드머의 희곡 『정상의 개들』에 등장하는 실업자들은 회사를 위해 평생 몸을 바쳐 고위직에 올랐다가 구조조정으로 인해 하루 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한다. 이들이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상황을 각자 보여주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은 모두 세계화, 구조조정이라는 사회적 문제에 의한 희생자들이다. 이들의 희생으로 기업은 살아남고 경제체제가 유지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냉혹함이 그려진다.

4. 서사구조

	내용
원인	신에 대한 과도한 믿음
	희생을 통해야만 해결될 문제 발생 (예: 구조 조정 -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해고 필요)
과정	갈등
	범죄
	희생에 대한 거부
	희생을 운명이라 받아들임
	우연한 사고
	살인(범죄)
결과	죽음
	이별
	갈등과 문제의 해결
	몰락

	희생으로 이익을 보는 개인 및 집단 발생
	희생을 통한 인간애의 발현

5. 유형 및 서사구조의 예: 『정상의 개들 Top Dogs』*

작가	우르스 비드머 Urs Widmer(1938 -)
장르	희곡
생성년도	1996
등장인물	회사 고위직에서 갑자기 실직한 인물들: 율리카 엔킨스, 수잔네 브라게, 도도 데에르, 우르스 비홀러, 한스페터 뮐러, E. 하인리히 크라우제, 미하엘 노이엔슈반더, 길레스 추디

5.1. 내용 요약

작품은 총 12장, 31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정한 줄거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각 장면은 대부분 독립적인 에피소드로서 작품 전체는 짧은 장면의 몽타주 또는 조립 형식이다. 구조조정에 따라 해고된 고위 간부들의 상황이 다루어진다.

데에르가 퇴직자 직업 알선 회사에 나와 있다. 그는 스위스 항공에서 30년 이상 열심히 일한 간부이다. 그는 자기 회사가 어떤 일 때문에 퇴직자 직업 알선 회사로 자신을 보낸 줄 알지만 나중에 자신이 해고되어 그곳에 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는 해고된 다른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되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는 훈련을 받게 된다. 이후에는 사람들의 재취업 훈련 모습이 이어진다. 이들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이었던 자신의 역할을 바꿔 연기해 보거나 보고의 형식으로 자신의 해고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의 사회적 역할 및 해고의 의미를 묘사한다. 대규모 콘체른 회사의 프로젝트 팀장이었던 뮐러, 재정분석가였던 브라게, 은행의 문화담당 기획자였던 노이엔슈반더, 한 금융그룹에서 증권을 맡았던 추디 등은 해고당한 후 자신의 심리상태를 보고한다. 독립된 형태로 이어지는 각 장면에서 해고라는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은 인물들의 복잡한 심리와 더불어 경쟁 사회에서 마치 살아남기 위한 전투를 하듯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여기에는 이들이 해고로 인해 갖게 되는 환상과 꿈도 포함된다. 마지막 장면에 재취업 교육을 끝낸 엔킨스는 일자리를 얻어 한국으로 떠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의 일이 갖는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지 작품은 많은 질문을 던져 준다.

* 정민영(역): 정상의 개들, 연극과 인간, 2002.

5.2. 모티프 유형 및 서사구조

- 유형: 사회적 문제에 의한 희생자

- 서사구조: 평생 회사를 위해 헌신했으나 구조조정과 세계화의 과정에서 정리되고 된다. 갑자기 해고된 후 실직자들은 정체성 상실과 배신감에 좌절한다. 회사는 이들의 희생으로 살아남는다. 실직자들은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

	내용
원인	회사의 구조조정
	세계화
	생존경쟁
과정	재취업 교육과정에 등록
	퇴직자 프로그램에서 역할놀이를 통해 상황을 재인식함
	사업은 전쟁과 같은 것임을 인식
	아내와 가족이 떠남
	자살할 생각을 함
	호텔에 틀어박힘
	희생에 대한 거부 - 경영진에 대한 분노 표출
	사장을 죽이는 꿈
	자신의 회사를 세워 성공하는 꿈
비로소 아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결과	재취업
	가족의 화합
	개인의 희생을 통한 회사의 자본주의적 경쟁력 강화

6. 작품 목록

되블린 Alfred Döblin: 『베를린 알렉산더 광장 Berlin Alexanderplatz』 (1929)

하우프트만 Gerhart Hauptmann: 『아우리스의 이피게니에 Iphigenie in Aulis』 (1944)

브레히트 Bertolt Brecht: 『조치 Die Maßnahme』 (1930)

뮐러 Heiner Müller: 『모저권총 Mauser』 (1970)

뵐 Heinrich Böll: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Die verlorene Ehre der Katharina』

Blum』 (1974)
 비드머 Urs Widmer: 『정상의 개들 Top Dogs』 (1996)

7. 연계 모티프

갈등, 권력, 배반, 실패, 폭력, 죽음

※ <모티프 연계를 통한 스토리생성의 예>

모티프 연계	갈등 + 희생 + 폭력 + 죽음 + 몰락
스토리	회사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긴다. 해고를 통해 회사는 살아남으나 실직자들은 희생된다. 실직자들의 폭력적 저항이 발생하고 실직자들이 타살되어 그 가족이 몰락한다. 인간애가 사라지고 극단적인 생존경쟁만 남는다.